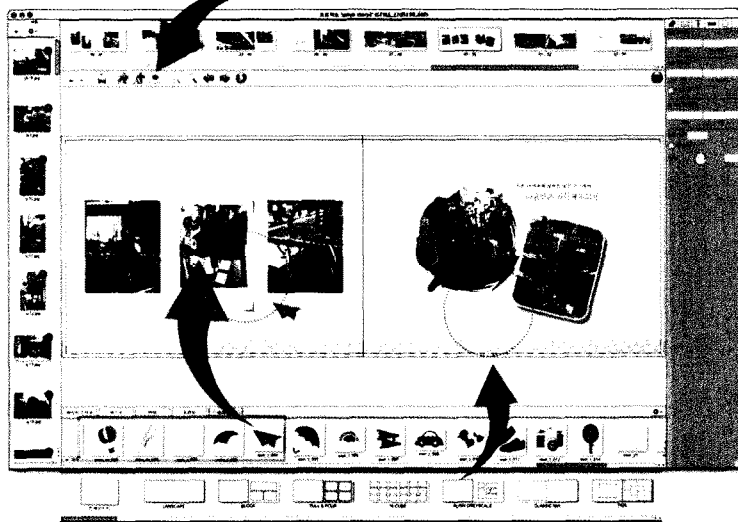


성진에드컴, 스타북(StarBook) 통한 포토북 서비스

홈페이지 통해 7가지 사이즈 제공



사진 자동배열하기 미리 설정된 템플릿에 자동으로 사진을 배치
(사진방향, 사진순서 설정 가능)



(주)성진에드컴(대표이사 이정희)은 포토북 제작 솔루션인 스타북을 개발, 홈페이지를 통해 포토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타북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디자인의 템플릿을 활용, 누구나 스타와 같이 최고 품질의 포토북을 제작, 소장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름 지어진 것으로 성진에드컴은 자사의 기술력과 빠른 전국 배송망, 스타북이 갖고 있는 제작의 편의성과 감성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템플릿 등이 결합되어 고객들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북 솔루션을 통해 시작하는 포토북 서비스는 총 7가지의 사이즈가 지원된다. 웨딩과 아기, 연인, 일상, 여행북 등 각 주제별로 적합한 사이즈를 선택, 제작할 수 있는데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한 작업이 최대의 장점이다.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후

제작하게 되면 자동 사진 배열기능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제작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북 개발을 총괄한 성진에드컴의 관계자는 “스타북은 프로그램만 다운로드하면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카페와 같은 다른 장소에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포토북 제작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도 바로 연동, 포토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계획을 갖고 있다” 며 “지금까지 성진에드컴은 인쇄품질과 서비스에서 항상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해 온 만큼, 앞으로 스타북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성진에드컴은 스타북 솔루션을 통한 포토북 서비스 실시를 기념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스타북 제품유형은 베이비·아동은 150×210mm, 210×150mm가, 일상·여행은 200×200mm가, 연인·웨딩·기념일은 190×270mm, 270×190mm, 210×297mm, 297×210mm가 있다.

한편 성진에드컴은 지난해 아이폰 앱을 출시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바 있으며, 2011년 들어 포토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다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홈페이지 www.dtpia.com

에이버리데니스, 기부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국가별 · 지역별 성금기탁 · 자연정화활동 등 펼쳐

에이버리 데니스는 회사의 여섯 가지 핵심 가치중 하나인 '지역사회에의 기여'를 실천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에이버리 본사는 뉴욕의 한 학교에 8,500 파운드가 넘는 학용품을 기증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국의 인쇄 및 포장 학과와 연계하여 산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낙후된 지역의 초등학교에 성금을 기탁하여 새 교사 건축을 돕는 등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 했다.

또한 에이버리 데니스는 재단 차원의 기부 및 지원 외에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자원봉사 활동도 글로벌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버리 태국지사 라용 공장의 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Baan Nong Mapring 학교를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직원들이 주말에 모여 학교 곳곳을 수리하고 단장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 에이버리의 경우 공신력 있는 사회복지 재단을 통해 성금을 기탁하는 한편, 지역별로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이버리 서울 직원들은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이 위치 해 있는 서울 중구 충무로 일대를 청소하는 등 가장 가까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봉사를 통해 이 뜻찬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에이버리 데니스 점착라벨 사업부의 이년재 상무이



▲ 중국 에이버리가 오지 초등학교에 기부한 행사모습.
▶ 한국 에이버리는 그린데이를 맞아 환경정화봉사 활동을 했다.



사는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자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기업으로서, 우리 회사는 앞으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책임을 다 하는 가운데 고객과 함께하는 견실한 성장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이지만 지역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임직원들의 마음이 이러한 자원 봉사 및 기부 활동들을 통해 작게나마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중소기업청, 궁금한 수출지원 꼼꼼한 가이드 책자 발간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지원제도 89가지 소개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궁금한 수출지원 꼼꼼한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수출을 처음 시도하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바이어 인콰이어리 대응, 수출계약서 작성 등 기초 무역실무 지원제도부터 수출유망기업들이 수출확대 및 시장개척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해외 현지지원제도, 관세제도, 금융·보험제도 등 수출과 관련된 정부·유관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총망라하여 FAQ방식으로 수록하여 무역절차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수출 실무, 수출마케팅 및 수출금융지원 등 크게 세가지 파트로 구성하였다.

수출 실무지원은 수출 일반상식, 업종-분야별지원, 수출컨설팅-수출인력, 해외지사-물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 마케팅지원은 기업별-단계별 지원, 해외전시회-바이어발굴, 해외시장정보, 온라인무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금융지원은 수출자금, 수출보험, 수출보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 및 응답 식으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쉽다.

특히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온라인 수출의 중요성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무역방법, 중국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차이나 입점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본지에서는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수출지원제도 89가지 중 한가지인 ‘100만불 이하 수출 초보기업이세요? 이런 지원 받아보세요’ 중 일부를 소개한다.

“인력도 자금도 여유롭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수출이라는 말 자체가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영문으로 된 제품소개서를

만드는 것도 문제이고, 알맞는 바이어를 찾는 것도 문제죠? 이럴때 중소기업청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을 이용해보세요. 수출에 필요한 무역실무 등의 교육분야에서부터 해외용 카탈로그 제작등의 디자인분야, 현지시장조사와 바이어 알선 등의 정보제공 분야, 통·번역 등의 마케팅 분야에 이르기까지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해외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초(12월~1월)에 전국적으로 1500개 수출초보 기업을 일괄 모집한 뒤 마케팅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초보기업의 기준이 뭐냐고요? 직전년도 제조자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하를 수출초보기업으로 정하고 있으니, 이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김영태 해외시장과장은 “그간 수출지원 유관기관별로 수출의 기초지식을 돕기 위해 각종 책자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기업비용 부담 등의 한계로 실제 책자를 구매하는 중소기업은 미미한 현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수출지원 기관별 핵심적인 지원내용을 묶어 마케팅, 현지진출, 자금, 보험 등 수출지원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89문제를 발췌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수출가이드 자료로 금번에 발간되는 책자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중소기업 수출성공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이 책자를 지방청 및 수출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초보 수출기업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등에 배포했으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exportcenter.go.kr)에서도 볼 수 있다. ☞

임남숙 차장sang@print.or.kr